

롯데 윤동희, 1호 홈런 주인공…피치클록 1호 위반은 롯데 로드리게스(종합)

등록 2026.03.28 19:04:45



[대구=뉴스시스] 이무열 기자 = 28일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개막전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 1회초 1사 주자 1루 상황에서 롯데 윤동희가 투런 홈런을 친 뒤 더그아웃에 들어서며 전준우와 기뻐하고 있다. 2026.03.28. lmy@newsis.com

[서울=뉴스시스]박윤서 기자 =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윤동희가 정규시즌 개막전에서 투런 아치를 그리며 2026시즌 1호 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윤동희는 2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솔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개막전에 3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에서 홈런을 쳤다.

0-0이던 1회초 1사 1루에서 타석에 선 윤동희는 삼성 선발 투수 아리엘 후라도와 맞대결을 펼쳤다.

윤동희는 볼카운트 1볼-2스트라이크에서 후라도의 5구째 시속 145km 직구를 건어 올려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선제 2점 홈런을 터트렸다. 2026시즌 개막전이 열린 5개 구장에서 나온 첫 홈런이다.

지난해 홈런 9개에 그쳤던 윤동희는 첫 경기부터 대포를 가동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이 홈런으로 윤동희는 이번 시즌 1호 타점을 기록한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대구=뉴스시스] 이무열 기자 = 28일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개막전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 1회말 롯데 선발투수 로드리게스가 공을 던지고 있다. 2026.03.28. lmy@newsis.com
피치클록을 가장 먼저 위반한 선수는 롯데 자이언츠의 새 외국인 투수 엘빈 로드리게스였다.

삼성전에 선발 등판한 로드리게스는 3-0으로 앞선 5회말 선두타자 이재현과 맞붙었다. 그러나 23초 내에 투구 동작에 들어가지 않았고, 심판은 피치클록 위반으로 볼을 선언했다.

지난 시즌부터 KBO리그에 도입된 피치클록은 올해 주자가 있을 때 25초에서 23초, 주자가 없을 때 20초에서 18초로 단축된다.

삼성과의 개막전에 2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롯데 손호영은 경기 시작 3분 만인 오후 2시3분께 안타를 날려 올 시즌 1호 안타를 작성했다. 손호영은 1회초 1사에서 삼성 선발 후라도를 상대로 중전 안타를 날렸다.

이후 손호영은 운동회의 홈런 때 홈을 밟으면서 시즌 1호 득점도 작성했다.

1호 병살타는 한화 이글스 포수 최재훈이 쳤다. 최재훈은 키움 히어로즈와의 개막전 2회말 1사 1루에서 병살타로 물러났다.

두산 베어스 1루수 양석환은 1호 실책을 범했다. 2회말 2사에서 서호철의 땅볼 타구를 제대로 포구하지 못하며 실책을 남겼다.

이밖에 이번 시즌 1호 도루는 KIA 타이거즈 윤도현, 2루타는 키움 안치홍, 3루타는 KT 위즈 안현민, 희생번트는 롯데 장두성, 볼넷은 KIA 김호령, 몸에 맞는 공은 NC 다이노스 최경원, 투수 탈삼진은 한화 월켈 에르난데스가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donotforge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